

한국의 재해간호교육 실태*

이 옥 철(적십자간호대학 부교수)
왕 순 주(한림대학교 교수)

Exploration on Disaster Nursing Education in Korea

Og cheol Lee/Soon Joo Wang

* 본 연구는 대한간호협회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Abstract

Purpose: The disaster occurs increasingly on the earth and nurses are requested to call out to on-sites or help emergency situation. This descriptive study was done to explore the disaster nursing education in Korea. **Method:** Data was collected from 116 nursing undergraduate program and 93 colleges responded, and analyzed frequencies and percentiles. **Results:** There was no institution offering Disaster Nursing titled course. Emergency Nursing was mostly combined with disaster nursing. More half (52.7%) did not deal disaster nursing concept at all, from which half had no plan to open in the near future. The lack of teaching manpower was shown. **Recommendation:** To meet the nursing need in disaster situation, disaster nursing competencies should be included in nursing major subject at the basic education level to be a registered nurse in Korea.

[Key words: disaster, disaster nursing, nursing curriculum, disaster nursing competencies]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재해란 인간에게는 조기사망, 삶의 질 저하, 건강수준 악화를 유발하는 총체적 경험이라 할 수 있다. 재해발생에는 시간과 장소가 따로 없으며 국제적 지원을 받아야 할 정도의 재해가 매주 한 건씩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재해는 지구촌 곳곳에서 나타나는 환경의 변화와 정치적 이기주의, 인구의 대이동 등으로 인해 다양화, 대규모화 되는 추세이다. 지난 5년 동안 국제적으로는 남아시아의 쓰나미, 미국의 카트리나, 파키스탄의 지진, 과테말라의 산사태, 중국 쓰촨성의 지진 등은 단 한 번에 수천에서 수십만의 생명을 앗아가고 수백만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킨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자연재해인 풍수해로 인해 지난 1990년대(1991-2000) 통계에 따르면, 연평균 122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었으며, 매년 17,219 명의 이재민 발생과 5800억 원 이상의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내 열차전복, 비행기 추락, 다리 붕괴, 유람선 화재, 도시가스폭발, 건물붕괴 등의 대형사고가 발생하여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 이르는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중앙재해대책본부, 2001). 21세기에 들어서 국제적으로 지구활동이 증가되면서 곳곳에서 대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국내에서는 대구지하철화재사고와 2007년 허베이스프리트호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자원봉사자

들의 신체적 건강문제가 야기된 바 있다.

재해 발생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발생시킴으로써, 죽은 자와 산 자 모두가 예기치 못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신체적 및 정신적 손상을 입게 된다. 신체적 손상이 없다 하더라도 생존자는 재산상의 손실로 인한 스트레스와 악화된 생활환경으로 인한 이차적 건강문제를 경험하게 되며¹⁾, 이들을 돕는 구호담당 직원이나 자원봉사자 역시 이차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재해건강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고자 할 때 간호사는 의료인력 중 가장 유용한 인력으로 간주되며, 기존의 간호지식과 기술에 '재해'라는 특별한 상황을 접목한 새로운 간호역할이 기대되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재해간호는 이제 도입단계를 넘어 발전기에 들어섰다고 봐야할 것이다. 일부 간호대학의 학부과정과 전문대학 과정에서 「응급 및 재해간호」 교과목을 전공필수 과목으로 개설하고 있고, 재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선택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는 대학의 수가 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추세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내용에 있어서는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또는 임상에서의 응급상황에 관한 것이 재해 상황이나 병원전단계 처치(pre-hospital care)에 비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¹⁾. 또한, 간호현장에서 일하는 졸업간호사들은 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서 재해간호에 대한 관심과 함께 자발적인 교육요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보건교사나 보건진료소 소장을 중심으로 재해간호 개념을 이해하는 수준의 보수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이나 교과과정이 내용과 방법에 있어 각기 다르게 실시되고 있다고 짐작되나 현황파악이 전혀 안되어 있는 실정인데, 이는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²⁾. 단지 일부 선진국에서 이를 파악하여 표준안을 만들 고자하는 노력이 시도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4년제 간호학과와 3년제 전문학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 전수를 대상으로 하여 재해간호교육 실태를 파악하고자 실시되었으며, 본 보고서의 결과가 국내 재해간호 교육과정의 표준안을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그 목적을 두었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한국의 간호대학을 대상으로 재해간호교육 실태를 파악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descriptive research) 연구이다.

2. 자료수집

전국의 116개(2006년 현재) 간호교육기관 전수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도구는 일본 재해간호학회가 사용하였던 도구를 교차 번역과정을 거쳐 관계자의 승인을 얻어 조사도구로

사용하였다. 이는 향후 두 나라간의 차이를 비교분석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고려하였다. 조사대상인 전국의 간호교육기관은 대한간호협회의 협조공문(교육 700-386)을 발송하여 2006년 7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수합된 유효한 설문지는 93개로서 응답률은 80.2%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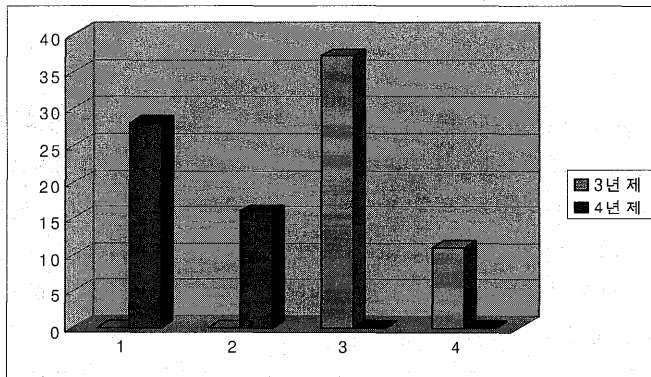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PC+를 사용하여 빈도수와 백분율을 적용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조사에 응답한 간호교육기관의 수업연한은 4년제 학사과정이 44개교(47.3%)였으며, 이들 중 16개교가 RN-BSN(졸업간호사의 간호학사 취득과정) 과정을 개설하고 있었다. 3년제 전문학사 과정은 49개교(52.7%) 중 12개교가 학점은행제를 개설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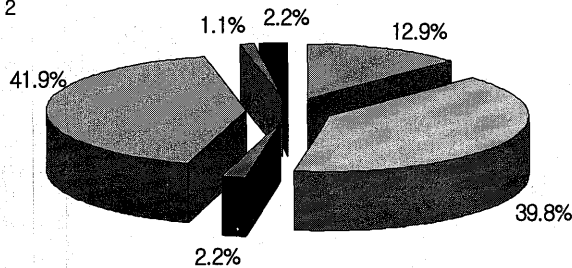
(*1-BSN, 2-BSN+RN-BSN, 3-Diploma, 4-Diploma+Credit Bank) <그림 1> 조사대상기관의 학제 형태

2. 재해간호 교과목 개설 현황

조사에 응답한 93개교 중 재해간호를 독립교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12개교(12.9%)였으며, 타교과목 내에서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답한 경우는 37개교(39.8%)였다. 특강형태로 다루고 있는 경우는 2개교(2.2%)였으며, 39개교(41.9%)가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

고 답하였다. 전체 간호교육기관 중 독립 또는 타교과목 내에서도 재해간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경우는 52.7%였다.

- 독립교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다 - 12
- 타교과목 내에서 다룬다 - 37
- 특강형태로 다룬다 - 2
- 전혀 다루지 않는다 - 39
- 기타 - 1
- 무응답 - 2



<그림 2> 재해간호 교과목 개설현황

3. 교과목 개설 운영 형태

1) 표방 교과목명

재해간호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목명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독립교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답한 경우에도 「재해간호」로 표방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으며, 「응급간호」 또는 「응급 및 재해간호」로 표방되는 경우가 12개교 중 10개교였다. 기타 「안전응급간호 및 실습」 또는 「응급 및 재해간호」로 표방되고 있었다. 이는 재해간호를 응급간호의 한 영역으로 보는 경향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해로 인해 대량 환자 발생시 이에 대응하는 병원 중심개념에서 비롯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비독립교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답한 경우에서도 「응급간호」나 「응급처치」, 「응급의학」, 「응급및재해간호」, 「응급및중환자간호」에서 다루고 있다고 답한 경우가 24개교(64.9%)였다. 비독립교과목이라고 답하면서 표방교과목명을 「응급및재해간호」라고 표방된 교과목을 독립교과목으로 또는 비독립교과목으로 답한 것은 교과목 내용의 비중을 따라 응답자가 독립 또는 비독립을 구분하여 답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비독립교과목으로 다루고 있으며, 「성인간호학」에서 다루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8개교), 「지역사회간호학」내용 중 다루는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3개교). 기타 「기본간호학」이나 「간호원론」등으로 답한 경우가 각각 한 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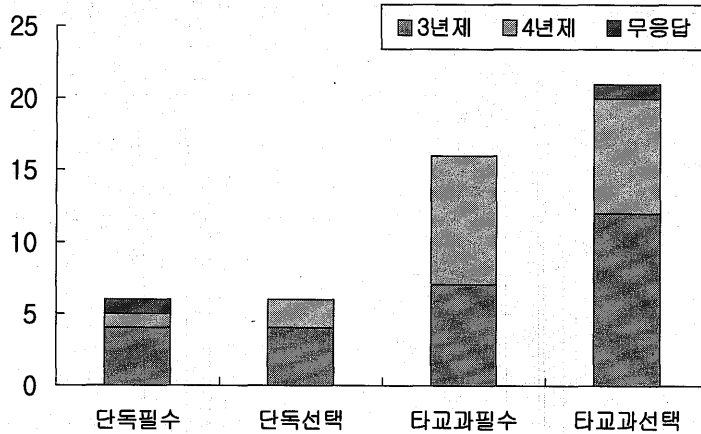
<표 1> 재해간호 관련 교과목의 표방교과목명 (*RN-BSN 과정 별도)

구분	운영형태	표방 교과목명
독립교과목 (12)	전공필수 (5)	4년제 (1)
		3년제 (4)
		무응답 (1)
	전공선택 (6)	4년제 (2)
	3년제 (4)	
비독립교과목 (37)	전공필수 (16)	응급간호(6)
		응급 및 재해간호(4)
		안전응급간호 및 실습(1)
	전공선택 (20)	응급 및 재해간호(1)
		응급간호(17)
		응급처치(4)
	응급 및 재해간호(1)	
	응급의학(1)/응급및중환자간호(1)	
	성인간호학(8)	
	3년제(12)	
	지역사회간호학(3)	
	무응답 (1)	
	기본간호학(1)/간호원론(1)	

2) 교과목 운영형태

학제나 독립 또는 비독립 교과목 구분 없이 재해간호의 교과목 개설형태를 살펴보면, 전공필수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21개교(42.8%)였으며, 전공선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는 26개교(53.1%), 무응답이 2개교(4.1%)로 나타났다. 이는 독립교과목으로 운영되든 비독립교과목으로 운영되든 전공선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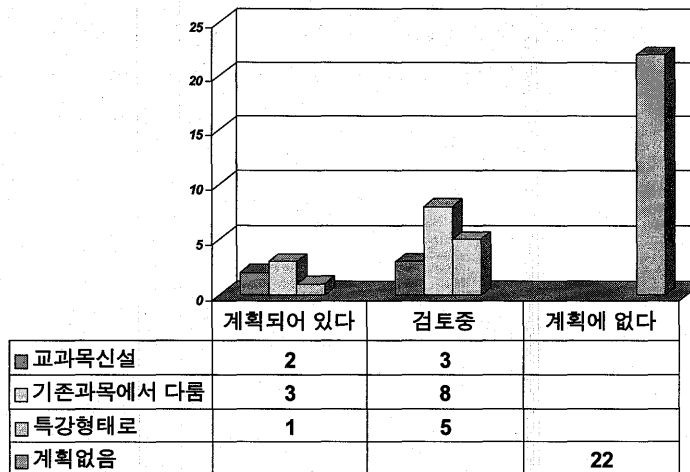
4년제 학사과정 내 개설된 RN-BSN 과정에서는 1개교가 1998년부터 전공필수 독립교과목으로 개설 운영하였으나, 2005 폐강하였으며, 현재 4개교가 비독립교과목으로 응급간호학(1개교), 응급처치(1개교), 성인간호학(2개교)내에서 다루고 있다고 답하였다. 전문학사과정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점은행제 학사과정에서는 전혀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학제별 재해간호 교과운영 형태

3) 향후 교과목 개설 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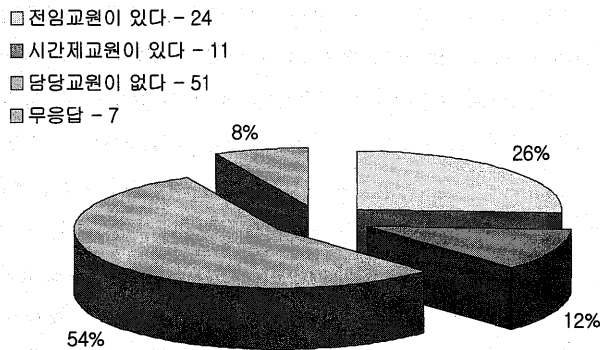
현재 재해간호 교과목을 독립 또는 비독립교과목의 어느 형태로도 개설하고 있지 않은 44개 대학 중 향후 재해간호학을 개설할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 6개교가 이미 계획되어 있으며, 교과목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경우가 2개교, 타교과목에서 비독립의 형태로 다루겠다는 기관이 3개교, 그리고 특강 형태로 다루겠다고 답한 경우가 1개교였다. 계획되어 있지 않으나 검토하겠다는 기관이 16개교였으며, 이중 독립교과목 신설은 3개교, 기존 교과목내에서 다룰 것을 검토하겠다는 경우가 8개교였다. 한편 향후에도 전혀 계획이 없다고 답한 경우도 22개교(50%)로 나타났다.



<그림 4> 재해간호를 전혀 다루지 않는 대학의 향후 계획 유무

4) 재해간호 담당교수 유무

재해간호학을 담당하는 전임교원 유무를 묻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기관 중 24개교(4년제 12개교, 3년제 12개교)가 전임교원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11개교가 외래강사(4년제 1개교, 3년제 10개교)가 담당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그밖에 전체 응답기관의 55%에 달하는 51개교(4년제 28개교, 3년제 23개교)는 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이 없다고 답하였다.



<그림 5> 재해간호 담당 전임교원의 유무

IV. 논 의

지구촌 곳곳에서는 예상치 못한 대형 재난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재해건강서비스체계를 마련과 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의 근간인 인력양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 이후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물론, 산업화로 인한 인적재난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여 새로운 건강요구가 창출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간호학 교육과정 내에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할 수 있다 (Minami,2004).

대규모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의 경우, 일본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동경적십자간호대학을 비롯한 30여 개 교육기관에서는 '적십자재해간호론', '국제재해간호활동론' 등 다양한 교과목을 학부과정에서 운영하고 있고 석박사과정에서도 전공영역을 개설하고 있어 국내 재해는 물론 국제재해구호팀의 리더를 양성하고 있다.³⁾⁴⁾ 미국의 경우 학부과정에서 재해간호의 개념을 다루고 있지는 않으나 Vanderbilt University 간호대학의 Nursing Emergency Preparedness Coalition 은 대테러 중심의 간호역량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과 보급에 힘쓰고 있다.⁵⁾⁶⁾

우리나라에 재해간호의 개념이 들어 온 것은 1990년대 중반의 일로 일부 4년제 과정과 3년제 과정에서 「응급및재해간호」 라는 교과목을 2학점 또는 3학점으로 개설하여 응급간호 중심으로 운영해왔다. 또한, 2002년 대한간호협회는 재해간호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강

사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05년 재해간호전문가위원회를 두어 민간자격제를 검토해왔다. 현재로서는 국군간호사관학교와 적십자간호대학이 재해간호전문가(가칭)민간자격 훈련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기존의 졸업간호사를 위한 과정으로 특별한 소임을 수행하기 위한 선택에 의존하게 되는 과정으로,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기에 기본역량을 갖추는 것과는 별개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국제간호협의회(ICN)는 2005년 재해간호 전문가(expert) 그룹을 형성하고, 2007년에는 재해 대응네트워크위원회(committee on disaster response network)를 통해 기본간호교육과정 표준안 내에 재해간호역량(disaster nursing competencies)을 포함하고자 준비하고 있다.⁷⁾ 이는 곧 간호사 양성을 위한 기본교육과정 내에 재해간호내용을 포함하도록 표준화함을 의미한다. 현재로서는 재해간호 관련 단독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교육기관은 12.9%에 불과하며 교과목 배정이 유동적이었던 점에서는 우려되는 바가 크다. 전혀 재해간호를 다루고 있지 않은 44개 교 중 향후에도 개설할 계획이 없다고 답한 경우가 22개교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ICN의 권장사항으로서 기본교육과정인 학부과정에서 재해간호역량을 추가하고자 할 때, 현재 해당내용을 다루는 전임교원 확보가 26%에 불과한 상황에서는 교수인력 확보도 문제가 될 것이다.

표방 교과목명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재해간호'로 독립된 교과목명을 쓰는 교육기관은 한 군데도 없었는데 그나마 '응급및재해간호' 식의 조합은 재해간호를 충분히 다루고 있다고 보아지나 겨우 4개교에 해당되고 있었다. 더욱이 비독립교과목으로 다루게 되는 경우 재해간호의 특성을 제대로 다루고 있는지는 의문시 된다. 그러나 국내에서 출판된 재해간호 관련 교과서로는 이 옥철 등이 저술한 '응급및재해간호'가 유일한 데, 11개교에서 채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표방 교과목명이 '응급간호'인 교육기관에서도 재해간호를 다루고 있다고 유추할 수는 있을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국내 자연재해 피해 발생 시 해당지역사회의 의료인력이 복구과정에 개입되는 것은 이미 정착화 되어 있다. 지난 2004년 12월 서남아시아의 쓰나미가 발생하자 대형병원에서는 자체적으로 해외의료구조팀을 조직하여 현장에 파견하였으며, 이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중국 등 지진 피해지역에 파견하고 있다.⁸⁾ 이러한 현상은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이라는 차원에서도 그 활동이 증가될 것이 분명하다.

재해현장에 파견되어 현장진료를 한다는 것이 임상과는 전혀 다른 환경적 조건이므로 사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훈련이 요구된다. 과연 국내에서는 재해간호 교육이 어느 정도로 실시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는 일본 재해간호학회에서 사용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전국간호교육기관 116개교 전수를 대상으로 하여 80.2%의 회수율을 보였다. 백분율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재해간호」로 표방되어 단독교과목으로 개설된 곳은 한 기관도 없었으며, 재해간호가 응급간호와

혼합되어 개설되고 있다고 전제할 때, 전체 응답기관의 36.7%인 36개교가 응급간호 중심의 재해간호를 다루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독립 과목은 아니나 타 간호학 전공교과목 내에서 재해간호 내용을 다룬다고 답한 경우는 성인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이 많았는데, 이는 자연재해의 경우 지역사회간호영역과 근접하고, 인적재해의 경우 외상환자가 동시다발로 발생하는 특성에 따라 성인간호학에서 응급간호 개념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향후 재해간호 교과목 개설에 대한 의지는 '전혀 계획이 없다'고 답한 경우보다 '검토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다'는 기관이 약간 많았다. 재해간호 교수인력에 대해서는 전임교수가 담당하는 경우는 24개교(26%)에 그쳤으며, 이 또한 지역사회간호학, 성인간호학, 기본간호학 등을 담당하는 교수가 담당교과목 내에서 함께 다루고 있었다.

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 1) 추후 변화를 다시 측정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적으로 재해 발생 빈도와 피해정도가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재해간호 교육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
- 2) 재해간호교과목 내용을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재해간호를 다루고 있다고 하나 실질적인 강의 시간 수나 내용이 조사되지 못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교과표 준안을 개발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이옥철(2006). 『응급 및 재해간호』, 서울: 현문사
2. Hiroko Minami(2004). "Disaster Nursing Preparedness, Response and Mitigation",
The Second Asian Forum on Disaster nursing 자료집, 4-26
3. 동경적십자간호대학(2008). "교육과정", <http://www.redcross.ac.jp/>(2008.7.1)
http://www.redcross.org/services/disaster/0,1082,0_319_00.html
4. 효고대학교(2008). "Core Competencies Required for Disaster Nursing",
http://coe-cnas.jp/english/group_education/core_competencies_list.html (2008.1.4)
5. 미국적십자사(2008). "nurse", <http://www.redcross.org/services/nursing>(2008.8.2)
6. Nursing Emergency Preparedness Coalition(2008). "Curriculum"
<http://www.nursing.vanderbilt.edu/incmce/curriculum.html>(2008.7.1)
7. Donna M. Dorsey(2007). "ICN Framework of Disaster Nursing Competencies", ICN Draft
8. 이옥철(2005). "재난대응의료시스템과 간호교육", 너스진, 24, 42-45

논문접수일 : 2008년 10월 11일

심사의뢰일 : 2008년 10월 18일

심사완료일 : 2008년 11월 18일